



해외양계 뉴스



일본 식품위생법에 계란추가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7월부터 O-157 등 살모넬라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식품위생조사회에 살모넬라 대책을 위한 분과회를 긴급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결국 조사대상이 계란에까지 확대되면서 식품위생법에 계란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계란 가공식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위생대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면 살모넬라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가공공정을 도입,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해 계란이 가공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판매되는 계란에는 식용부적란(부화중지란, 심한 파란)의 식용금지, 식란의 기한표시 의무화, 식품조리 계란의 가열실균 의무화, GP센타의 위생관리 철저, 소비자의 위생관리 매뉴얼과 액란의 성분규격 책정 등 생식기능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규제가 엄격화되었다. 이 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鷄鳴新聞)

전국 부화장 197개소(산란계 66, 육계 106)

일본 농림수산성이 '97년 2월 1일 현재로 발표한 부화, 종계관련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부화장 수가 197개소이며 이중 등록을 한

표1. 일본의 부화장 추이(단위 : 기구)

구 분	산 란 계	육 계	난육겸용	합 계
1980년	130	186	52	368
1985	107	165	34	306
1990	89	130	25	244
1995	45	106	31	202
1996	64	104	29	197
1997	66	106	25	197

표2. 1997년 입란능력 규모별 부화장수(단위 : 기구)

구 分	산 란 계	육 계	난육겸용	합 계
1만개 미만	2	4	6	12
2만~5만	3	4	5	12
5만~10만	4	3	-	7
10만~20만	8	7	1	16
20만~50만	24	21	7	52
50만~100만	16	47	3	66
100만개 이상	9	19	2	30

부화장은 186개소로 알려졌다. '96년과 비교해 볼 때 산란부화장은 2개소가 증가한 66개소, 육계부화장수는 역시 2개소가 증가한 106개소, 난육겸용부화장은 4개소가 감소한 25개소로 나타났다.

말레이지아

약제 사용에 따른 문제

말레이지아는 양계농가들에게 성장촉진제 및 항생제 사용을 2년전부터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성분이 닭고기에 잔류될 경우 발암물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 지역 신문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 되어오고 있는 약제 대신 사양가들은 곧바로 다른 약제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약제들도 해로운 것은 마찬 가지라고 밝혀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한 정부 관계자는 닭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각종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농가에 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사양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더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농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WP)

캐나다

닭 부족현상으로 어려움

최근 캐나다의 양계산업이 닭부족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하는 닭이 원천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최소한 20%에 해당하는 양계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

도록 되어있으며 기존에 수입하던 종란과 닭들은 캐나다 생산물 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수입이 순조롭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올해 들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데다 미국 북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캐나다는 부화업자들에게 기존 생산 물량을 5%이상 생산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은 그 물량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WP)

베트남

커피재배지에서 사육한 닭

베트남의 커피재배지역에서 키워진 닭들이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닭들보다 생산성이 높았다고 베트남 뉴스지에서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커피재배지에서 커피잎을 먹고 키워진 닭들이 일반 닭들보다 30~40%나 사육하는데 경비가 절감되었으며 고기의 질과 양도 우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 육계 사육업자들이 커피잎을 구하려고 몰려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WP)

KFC 베트남 시장 진출

KFC는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패스트푸드 1호점을 개점하면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 앞으로 2003년까지 20개 점포를 더 개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KFC사는 올해 계획으로 2개점포를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세울 것이라 밝혔다.(APM)